

## 2025 융합형 인재양성 해외탐방 결과보고서 제목

### 1. 탐방개요

#### 가. 탐방목적

- 싱가포르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 모델 탐구 및 한국형 융합 의료 시스템 적용 방안 연구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의료 기술 혁신을 갖춘 싱가포르는 헬스케어에 대한 통찰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본 탐방을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와 데이터 융합을 통한 미래 의료 혁신 모델을 탐구하고, 의료, 공공행정, 정보기술의 융합적 사고를 확장하고자 한다. 강의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학습을 통해 싱가포르의 의료데이터 수집,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방향성을 모색함으로 데이터기반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안전성, 효율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싱가포르 융합형 인재양성 해외탐방 경험을 통해 한국에 헬스케어의 질을 향상시키는 글로벌 융합형 헬스케어 혁신인재로 성장하고자 한다.

#### 나. 근거

본 탐방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을 싱가포르와 한국의 의료 서비스의 차이점이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모두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이지만, 의료 전달체계와 의료 데이터 관리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싱가포르는 1차 의료기관인 GP를 중심으로 한 의료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 국민이 각자 정해진 의료인을 통해 건강 상태를 평가받고, 필요 시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수도권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의료 시스템은 국가 주도의 통합 의료 데이터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환자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과거력 등 의료 데이터가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되어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의료진이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복 검사를 최소화하며,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한국의 의료 데이터는 병원별 EMR을 통해 분산 관리되는 구조로 의료기관간 데이터 연계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거나 이송될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CD나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동일한 검사를 반복해야 하거나, 과거 병력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진료의 신속성이 늦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료 전달체계와 데이터 관리 방식의 차이는 스마트 헬스케어와 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와 장기적인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자의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의료 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직접 현장에서 탐방하고 분석하는 것은 의료, 정보기술, 공공행정이 융합된 미래 의료 모델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

다. 탐방기간

2026년 1월 5일 ~ 1월 9일 (3박 5일)

라. 탐방국가(장소)

싱가포르

마. 팀명 및 팀 구성

• 팀명: NICE

- NICE(Nursing, Industrial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Elplore)팀은 간호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모여 서로 다른 관점을 융합하여 미래 의료 혁신의 길을 탐험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각 전공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의료, 데이터, 정책, 기술을 아우르는 시각으로 탐구하여 미래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팀 구성

- 박신원(간호학과/공공인재, 데이터안전활용 융합전공)
- 김현영(산업경영공학과/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 융합전공)
- 박마린(컴퓨터공학과/산업경영공학과 부전공)
- 황지민(산업경영공학과/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 융합전공)

**2. 탐방 세부일정**

• 1/5(월)

- 18시: 한국 → 싱가포르

• 1/6(화)

- 10시: 파러파크 병원 견학
- 12시: 싱가포르 종합 병원(SGH) 및 박물관 견학
- 14시: 점심
- 15시: HPB 건강 증진국 견학
- 17시: 올드 힐 스트리트 경찰서 견학
- 18시: 저녁
- 19시: Singapore River Cruise 탑승

- 20시: 멀라이언 파크 관람
- 21시: 귀가

• 1/7(수)

- 11시: 유니버설 스튜디오
- 19시: 귀가

• 1/8(목)

- 12시: 점심
- 14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관람
- 16시: 마리나 베이 샌즈 관람
- 20시: 공항 도착
- 23시: 비행기 탑승

• 1/9(금)

- 싱가포르 → 한국

### 3. 탐방 과제에 따른 활동내용

#### 가. 파러파크 병원 견학

- 본 탐방에서는 싱가포르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위해 파러파크 병원을 견학하였다. 파러파크 병원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민간 종합병원으로, 의료 서비스 전반에 정보기술과 데이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융합한 스마트 병원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탐방의 목적이 부합하는 기관이다. 파러파크 병원 진료, 검사, 수술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계되며, 의료진은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환자의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병원 단위 전자의무기록 (EHR, EMR)과 싱가포르 국가 의료 데이터 시스템 (NEHR)이 연계된 구조를 통해 의료진은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환자의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진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중복 검사는 불필요한 의료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싱가포르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료 데이터 통합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병원 단위에 국한되지 않는 연속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병원 운영 전반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적극 활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파러파크 병원은 환자의 진료 흐름, 회전율, 검사대기 시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고 있었으며, 이는 환자 대기 시간 감소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동시에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의 핵심 요소를 잘 보여준다.

또한, 파러파크 병원은 단순히 치료 중심의 의료를 넘어 예방과 사후 관리까지 고려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었다.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은 만성질환 관리와 장기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한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의미 있는 모델로 느껴졌다.

이번 견학을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와 데이터 융합이 단순한 기술을 도입을 넘어, 의료 전달체계 전반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의료 데이터가 연계와 표준화와 이루어질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탐방 경험은 향후 한국형 융합 의료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 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모델의 실질적인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나. SGH(싱가포르 종합병원) 및 박물관 견학

- 본 탐방에서는 싱가포르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체계가 공공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싱가포르 종합병원(SGH)과 SGH 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세계 병원 랭킹 아시아 1위인 싱가포르의 국립 종합병원으로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 실제 의료 서비스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탐방지였다.

SGH 박물관에서는 135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싱가포르 의료 체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초기에는 감염병 대응과 기초 의료 제공 중심이었으나 점차 국민 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의 보건 정책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환자 기록, 질병 통계, 보건 지표 등 의료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데이터가 국가 보건 정책 수립과 의료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SGH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그치지 않고 병원 운영 전반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실제로 SGH는 2018~2022년 기준치 대비 에너지 이용 지수(EUI)를 10% 감축하고 물 효율 지수(WEI)를 10% 절감하며 2022년 기준 대비 폐기물 처리 지수(WDI)를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는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느껴졌다.

또한 SGH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그치지 않고 병원 운영 전반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실제로 SGH는 2018~2022년 기준치 대비 에너지 이용 지수(EUI)를 10% 감축하고 물 효율 지수(WEI)를 10% 절감하며, 2022년 기준 대비 폐기물 처리 지수(WDI)를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는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느껴졌다.

특히 병원 내 환경 설계 역시 환자의 회복과 정신적 안정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의 확장된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SGH에는 200주년 기념 정원을 비롯해 다양한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공간들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치유 환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는 헬스케어가 단순히 치료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과 공간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였다.

아울러 SGH는 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실천하고 있었다. 투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역삼투압(RO) 방식으로 정화하여 재활용하고 이를 공용 공간 청소나 식물 관수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병원 내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는 등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더불어 SGH는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녹색 통로(Green Corridor)를 조성하고 직원과 시민들이 친환경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기적인 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 구성원들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인상 깊었다.

이번 SGH 및 박물관 견학을 통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는 진료 정보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병원 운영, 환경 관리, 정책 결정 등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역시 의료 데이터의 표준화와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탐방 경험은 향후 한국형 융합 의료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되었다고 느꼈다.

#### 다. HPB(건강증진국) 견학

- 본 탐방에서는 싱가포르의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사후적인 '치료(Cure)'를 넘어 선제적인 '예방(Care)과 관리' 중심으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싱가포르 건강증진국(HPB)을 방문하였다. HPB는 싱가포르 국민의 생활 습관 개선과 만성질환 예방을 주도하는 핵심 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건강 증진 정책이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탐방지였다.

견학을 통해 싱가포르의 새로운 헬스케어 비전인 'Healthier SG' 전략을 청취하며,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데이터 플랫폼처럼 연결되어 운영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국민 필수 앱으로 자리 잡은 'Healthy 365'와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연동되어 전 국민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거대한 IoT 인프라 환경이었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지역 거점마다 '디지털 허브'를 운영하고 키오스크를 배치하는 등 기술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공공 서비스 디자인이 적용된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핵심이 첨단 기술 자체보다는 전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UX) 설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내셔널 스텝 챌린지'와 같은 프로그램이 실제 국민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었다. 걷기 운동이나 식단 기록과 같은 건강 활동에 대해 즉각적인 포인트 보상을 제공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전략은 '넛지(Nudge)' 이론을 공공 정책에 성공적으로 접목한 사례로, 자발적인 건강 관리를 유도함과 동시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양질의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헬스케어가 병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데이터와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일상 영역으로 깊숙이 확장되고 있음을 체감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HPB 견학은 싱가포르의 스마트 헬스케어가 단발성 캠페인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국가 운영 시스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향후 한국형 융합 의료 시스템을 구상함에 있어 파편화된 개인 건강 기록(PHR)을 어떻게 통합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예방 중심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4. 탐방 활동 후 배운 점 및 느낀점

##### - 박신원(간호학과/공공인재, 데이터안전활용 융합전공)

싱가포르 융합전공 탐방을 통해 간호학이라는 전공의 시선에서 새로움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싱가포르 종합병원(SGH)을 견학하며, 임상실습에서 경험해 온 한국의 병원 환경과 비교해 의료 시스템 전반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다. 병원 내부를 직접 이동하며 하나의 병원이라기보다 의료 단지에 가까울 정도로 규모가 컸고, 환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병원 내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는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배려로 느껴졌고, 고령 환자나 이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질환별로 건물이 구분되어 있는 구조와 응급실, 안과, 암 전문 센터 등 부서별로 건물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한국의 대형 병원과 유사한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형태라기보다는, 유사한 기반 위에서 GP등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병원 내 출입문 구조였다. 겉보기에는 일반 여닫이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동문으로 작동하

는 경우가 많았고,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감염 관리 및 위생 측면에서 효과적인 설계라고 느껴졌다. 이러한 세부적인 시설 설계는 업무 환경과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향후 한국 병원 환경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응급실의 경우, 대기 중인 환자가 많은 모습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기존 온라인 자료를 통해 접했던 싱가포르 의료 시스템의 특징을 실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비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번 탐방을 통해 의료 현상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환경 속에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함을 깨닫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 김현영(산업경영공학과/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 융합전공)

산업경영공학과와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번 싱가포르 헬스케어 탐방은 의료를 단순한 진료 행위가 아닌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설계되는 하나의 운영 체계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파러파크 병원, hpb, 싱가포르 종합병원을 방문하며, 싱가포르의 의료 시스템이 개별 기관 중심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파러파크 병원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흐름이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의 진료 과정, 검사 대기, 병상 운영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은 산업경영공학과에서 배우는 프로세스 분석과 운영 효율화 등 의료 현장에 적용된 사례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학통계에서 다루는 변동성 관리와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의료 서비스 품질 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전공 학습 내용과의 연관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HPB 방문을 통해서도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 헬스케어의 가능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은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 전공에서 배우는 데이터 활용과 예측의 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향후 머신러닝 기반의 위험군 분류나 질병 예방 모델로 확정될 수 있는 구조라고 느꼈다. 이는 의료가 병원 안에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상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또한 싱가포르 종합병원 박물관을 통해 의료 기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스마트 헬스케어 역시 지속적인 표준화와 시스템 개선의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이번 탐방을 계기로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도 국가 단위 의료 데이터 연계와 데이터 기반 운영 관리과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전공 이론을 실제 의료 현장과 연결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에 기여하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더욱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 박마린(컴퓨터공학과/산업경영공학과 부전공)

컴퓨터공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산업경영공학을 부전공하며,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의 프로세스와 결합했을 때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싱가포르 융합전공 탐방은 헬스케어라는 특수한 도메인에서 IT 기술과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파러파크 병원과 싱가포르 종합병원(SGH)을 견학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이 보여주는 실질적인 효율성이었다. 컴퓨터공학도의 시선에서 바라본 싱가포르의 병원은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방대한 의료 데이터가 생성되고 흐르는 거대한 서버와 같았다. SGH가 여러 건물로 나뉘어 있고 셔틀버스로 연결되는 거대한 단지형 구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정보와 진료 의뢰가 끊김 없이 연결되는 모습에서 강력한 병원정보시스템(HIS)과 네트워크 인프라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또한, 산업경영공학 부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병원 내부의 프로세스를 관찰했을 때, 환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동선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스템적 설계가 돋보였다. 다른 학우들이 언급한 자동문 시스템이나 부서별 건물 배치 또한 단순한 건축적 설계를 넘어,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 물류와 인력의 이동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알고리즘적 사고가 반영된 결과물로 다가왔다. 이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모듈화를 통해 시스템의 복잡도를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원리와의도 맞아 있다고 생각했다.

싱가포르 건강진흥청(HPB) 방문을 통해서도 예방 중심 헬스케어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생활 습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은, 향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였다.

이번 탐방은 개발자로서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이 적용될 현장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용자(환자와 의료진) 경험(UX)을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융합형 IT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는 확신을 얻었다.

- 황지민(산업경영공학과/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 융합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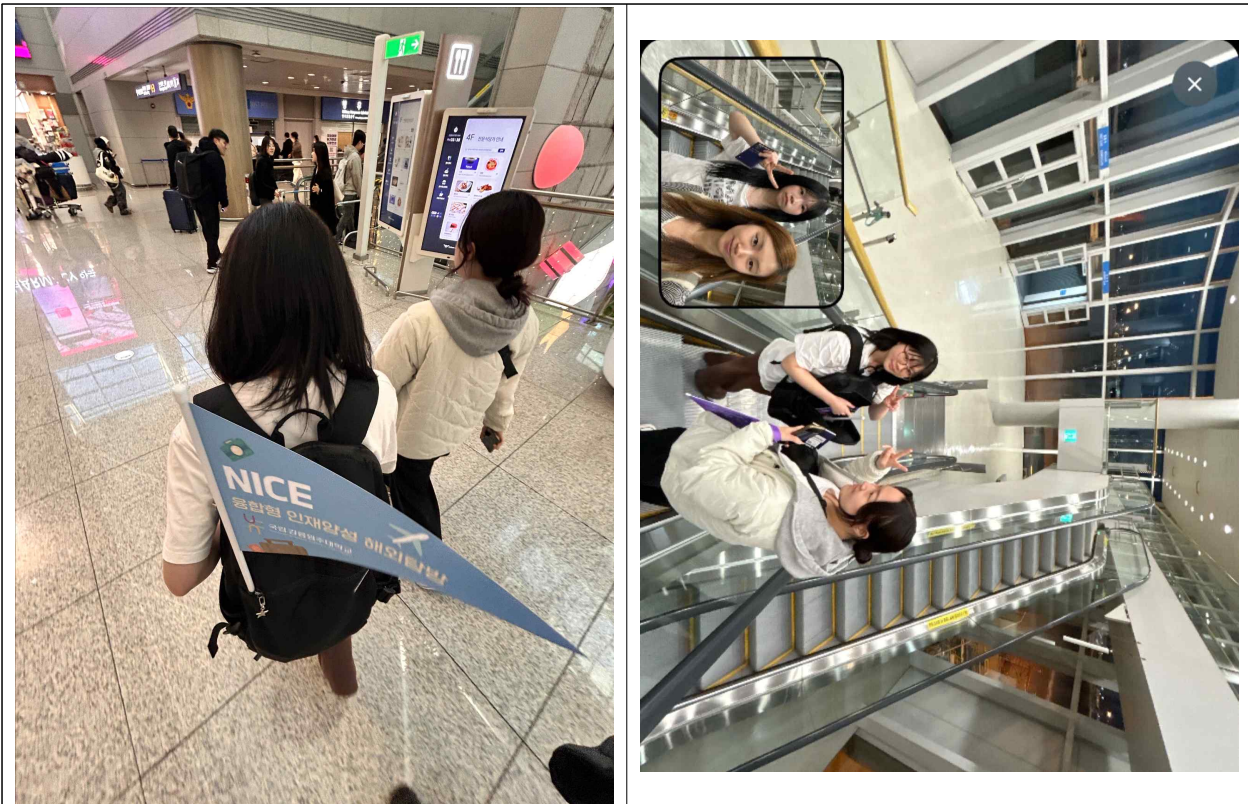
싱가포르 융합전공 탐방은 산업경영공학과 헬스케어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의료와 공공 보건 시스템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견학하면서 의료 서비스가 단순한 치료 제공을 넘어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구조 위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먼저 파러파크 병원 견학에서는 최신 의료 기술과 스마트 병원 환경이 인상 깊었다. 병원 전반이 디지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환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 설계와 운영 방식이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산업경영공학 관점에서 볼 때 병원이 단순한 의료 기관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었다.

싱가포르 종합병원(SGH) 견학에서는 대규모 의료 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질환 및 기능별로 건물이 구분되어 있는 구조는 한국의 대형 병원과 유사했지만 전체 동선과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환자 흐름 관리와 자원 배분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 보였다. 그리고 자동으로 양쪽 문이 열리는 것이 환자의 이동과 감염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SGH병원이 한국 병원과 다른점은 병원에 다양한 식물들이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다. 한국 병원과 달리 다양한 식물들을 보고 식물 설치가 쾌적함과 면역력 향상 그리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병원을 둘러보면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여러 치유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을 한국에도 도입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함께 방문한 의료 박물관을 통해 싱가포르 의료 제도의 발전 과정과 역사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축적된 경험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 5. PPT, 활동사진, 영상 등 활동내역 자료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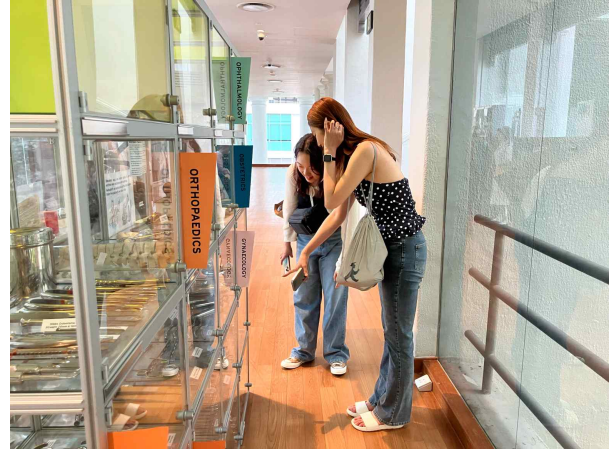


인천 공항에서 NICE 팀 깃발과 함께 싱가포르 창이공항으로 출발



파러파크의 병원 견학 (Farrer Park Hospital)

싱가포르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 병원 운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파러파크 병원 견학을 하였다.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되는 스마트 병원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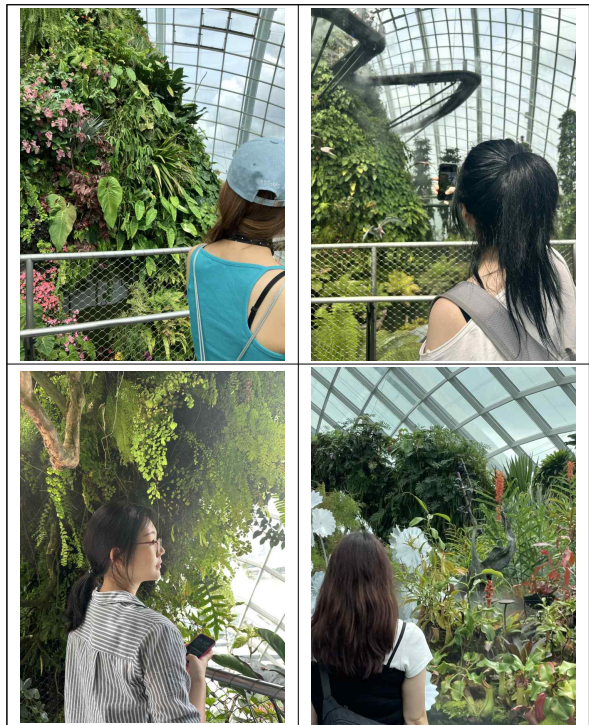


싱가포르 종합병원 박물관 (Singapore General Hospital Museum)

과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수술 도구, 장비 등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다. 초기의 단순한 의료도구에서 발전한 기기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싱가포르의 현지 음식인 칠리크랩과 대표 건축물이자 상징적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를 관람하러 갔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인공 공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 온실 식물원을 품고 있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관광하였다.